



金融構造調整과 中小企業金融

朴 竣 卿 (KDI 선임연구위원)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주로 부실 채권의 정리, 금융기관의 퇴출·합병 등의 응급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과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실질적인 금융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이 진전되면 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어 소유구조가 개편될 것이다. 정부지분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과 국내 산업자본의 참여가 결정되고 경쟁구조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금융시장의 경쟁체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경영행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자유화·개방화가 가속되어 국내에 진출하는 선진국 금융기관과의 全方位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서비스가 선진화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내 금융기관이 도태되고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증가할 수도 있다. 국내 은행은 자산규모, 수익성, 선진금융기법 등에서 외국 은행에 비하여 경쟁력이 취약하다. 선진금융기법에 의한 도매금융·국제금융에서는 이미 국내 금융기관의 시장이 상당히 잠식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매금융에서도 시장잠식의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다.

대기업의 銀行離脫이 가속되면서 선진국 은행은 소매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고수익의 원천으로 중소기업을 주목하는 것이다. 성장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손익분석에 근거하여 차별화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만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은행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을 세분하여 차별화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부단히 차별화 상품·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므로 개발비용이 상당하지만 차별화에 의하여 고수익이 보장된다. 우량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수수료도 인하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기업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위험분산을 위한 대출자산구성의 계획에 의하여 경기순환과 무관하게 대출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전략에 의하여 고객만족의 상품·서비스를 개발한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금융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고객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금융의 문제는 취약한 信用基盤

금융지표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금융문제는 선진국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선진국에 비하여 자기자본비율과 수익성이 현저히 낮다. 자본과 기술의 축적에서 선진국 중소기업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금융체제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는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량 중소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으며 특히 영세한 하도급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금융비용의 부담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문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 신용기반이 빈약하여 중소기업 내부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인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情報의 非對稱性에 의한 逆選擇의 문제가 선진국에 비하여 심각한 것이다. 혁신적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기능이 취약하고 중소기업관련 제도·정책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호황국면에서 대규모 과잉투자가 발생하여 불황국면의 대규모 연쇄도산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어음할인·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금융을 확대하려는 단순한 정책과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악순환을 조장한 것이다. 어음의 부도율과 信用保證의 代位辨濟率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중소기업의 금융지표가 개선되려면 혁신적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혁신적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술혁신정책과 금융시스템의 선별기능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우량 중소기업의 확보를 위한 경쟁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분석·위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드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의 확대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량 중소기업의 수가 불충분하고, 신용정보기반이 부실하여 신용분석·위험관리의 비용이 과다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信用情報시스템의 구축과 어음·신용보증의 제도정비가 지체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개선되지 아니하면 금융구조조정이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율의 어음부도와 대위변제는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를 지원하는 금융중개기능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어음제도의 방만한 운영은 지식집약화에 투자되어야 하는 금융자금이 쇠퇴업종의 연명에 전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세계화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중소기업부문이 쇠퇴할 위험이 있다.

信用情報시스템의 구축

고율의 어음부도는 신용기반의 취약성과 어음제도의 방만한 운영에 원인이 있다. 장기적으

로는 팩토링에 의한 賣出債權의 流動化와 매출채권의 신용보험이 확산되도록 신용기반을 구축하여 어음제도의 자연적 축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과도기 조치로서 어음제도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정책금융으로 운용되는 한국은행의 總額限度貸出制는 폐지하고 신용정보에 의한 할인금리의 차등화를 유도해야 한다. 稅制改革도 필수요건이다. 과세자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유인을 강화하고, 성실신고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조세전산망의 확충과 징세행정의 선진화를 추진하며, 불법신고·부실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도어음의 발행에 대한 사후제재와 신용정보관리를 강화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가중시키고 債權推尋도 강화해야 한다. 當座開設要件도 연차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예시하여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신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은행거래실적, 세무신고내용, 기업간의 결제조건 등 기업신용에 관한 모든 정보가 信用情報會社에 집중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내 신용정보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취약하다. 신용정보의 공개를 기피하는 기업의 행태와 신용정보의 공유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다. 기업신용을 공시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신용에 의하여 거래조건을 차등화하는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개별 금융기관에 의하여 취합되는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시스템의 중추기관에 집중·종합되어 저비용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部分保證의 단계적 도입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는 대다수 국가에서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분담한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BIS 자기자본규제로 인하여 위험가중치가 낮은 信用保證附 대출을 더욱 선호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全額保證을 고수하는 한편 금리규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는 모순된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정책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IMF 사태 이후 금융의 건전성이 강조되는 등 금융기관이 部分保證의 수용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은 신용등급에 의한 차등금리의 적용으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우량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신용평가의 강화가 불가피하다. 부분보증이 시행되어도 위험분담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은 근소할 것이다. 적절한 대출심사와 대출자산 구성, 전문적 채권회수 등에 의하여 대손상각율이 충분히 저하될 수 있다. 신용보증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신용보증의 운용을 효율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고율의 대위변제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분보증의 도입도 신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가며, 사전에 예시하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강화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개선되어도 중소기업금융의 성과는 결국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와 중소기업금융의 개선은 상호 보완적이다. 혁신적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혁신체제가 단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국내시장에서도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될 것이다. OECD는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25%, 세계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25~50%로 추정한다. 국제경쟁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은 40%로 추정하며, 장래에는 2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72)

Northwestern대학 경제학박사(1982)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1971~현재)

한국과학기술원 겸직교수(1983~85)

제6차5개년계획 총량부문 위원 (1986)

제7차5개년계획 총량부문 · 산업정책부문 · 인력
정책부문 위원 (199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1997~98)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법인 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개인 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 행사 참가비 할인
 -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 가입 문의
 -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 mail : igenet@igenet.com